경남도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혹서기 막바지 '안전사고 ZERO' 총력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8.30 17:47 | 10면

처서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 대비 관내 사업현장 특별 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 27일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막바지 특별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지난 27일 혹서기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늦더위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막바지 특별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상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폭염과 높은 습도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방심하기 쉬운 점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관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을 위

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적정한 휴식 시간 부여▲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 했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119신고 및 응급조치 체계 구축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아울러 체감온도 33°C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및 옥외 작업 단축, 35°C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했다.

이재경 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혹서기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온열질환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